

## News

### 신한궤 배당 확대...주총 앞둔 금융지주 대세로

매일경제

신한금융지주가 주주환원에 관한 구체적 수치를 내며 금융권에 '배당 경쟁' 촉발  
일각에서는 배당을 늘리기 위해 은행 주 수익원인 대출을 줄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염려도

### 비은행 사업 확대 나선 금융권...보험·캐피탈에 군침

디지털타임스

금융그룹들이 수익성 강화를 위해 '비은행' 사업 확대에 적극 나서면서 인수·합병(M&A) 경쟁이 치열해짐  
특히 글로벌 통화 긴축과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에 빠진 일부 금융사들의 몸값이 낮아지면서 대형 금융지주들에게겐 쇼핑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분석

### 은행들 올해도 성과급 잔치...당국 '대출금리' 손본다

중앙일보

주요 은행이 지난해 높은 실적을 올리며 직원에게 기본급의 300~400%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할 전망  
금리가 상승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이자 수익을 봤기 때문

### '호황일때 떠나자' 은행 희망퇴직 급증...두달새 약 3천명 짐쌀듯

연합뉴스

1년전 2천200여명보다 급증...KB도 작년보다 많은 약 730명 신청  
오히려 노조가 "대상 늘려달라"...경기·업황 침체 예상, 인생2막 조기준비 등 영향

### 유동성 위기 급한 불 껐나...속도 조절 나선 보험사

이투데이

보험사들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채권을 1조546억 원 순매수, 보험업계의 채권 투자가 순매수로 돌아선 건 1년 만에  
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자금 흐름이 안정화, 일일납 저축보험 상품 판매를 확대하면서 한시름 놓게 되자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는 분석

### 딱딱해진 살림에 보험도 깬다...해약환급금 급증

미디어펜

지난해 3분기까지 생보사들의 해약 환급 금액 24조 3,3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.3%(4조 5,977억원) 늘어남  
대표적 불행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약관대출도 증가, 생보사의 보험약관대출 규모 지난해 9월 말 기준 49조 5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.4% 증가

### 파생결합증권 발행액 11.3조원... 전분기비 23% ↓

아시아투데이

지난해 3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직전 분기 대비 23%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
금융당국은 투자자 손실위험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증권사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

### 美, 장외시장 동전株도 규제...韓 증권사, 매도 추천 잇따라

대한경제

올해부터 미국 정부가 비거주자의 매도금액 10%를 원천징수하는 공개 거래 파트너십 규제를 실시한 데 이어 장외 시장 동전주 규제도 강화할 방침  
증권사들은 PTP 관련 원자재·에너지에 이어 급성장하는 미국 OTC 시장에서도 매도 추천

#### 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 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 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 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